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한반도 평화지수, 2015년 3/4분기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8.25 합의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치 급상승

발 행 인 : 강 인 수
편집주간 : 김 동 열
편집위원 : 주 원, 이부형
발 행 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 (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한반도 평화지수, 2015년 3/4분기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8.25 합의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치 급상승

Executive Summary	i
1. 2015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1
2. 특징 분석 및 항목별 · 성향별 평가	2
3. 시사점	6

<요 약>

■ 한반도평화지수, 2015년 3/4분기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8.25 합의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치 급상승

(종합 평가) 2015년 3/4분기 평화지수와 4/4분기 기대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3/4분기 평화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9.7p나 상승한 47.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상태’에서 북한 실세 3인방 방문으로 일시 반등했던 2014년 4/4분기의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로 회복했다. 4/4분기 기대지수 역시 전기 대비 17.8p나 상승한 53.1을 기록하여 3 분기만에 긍정적으로 반전되었다.

(주요 특징) 2015년 3/4분기 평화지수와 2015년 4/4분기 기대지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지수는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로 나뉘지는데, 전문가평가지수는 급등한 반면, 실적치에 기반한 정량분석지수는 하락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전문가평가지수는 북한의 광주 U-대회 불참과 대남 비난, 목함 지뢰 사건 등의 긴장 조성에도 불구하고, 8.25 남북고위급 합의로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 해소됨에 따라 22.4p나 급등하였다. 반면에 정량분석지수는 개성공단 사업과 경협 부문의 남북협력기금 집행 실적, 방북 인원 등의 감소로 6.2p 하락했다.

둘째, 4/4분기 기대지수가 지난 분기 비해 17.8p나 상승한 53.1을 기록해 2013년 4/4분기 이후 최고치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폭도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8.25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 교류 확대, 우려했던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의 도발 자제 등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성향 구분 없이 모두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으며, 보수 성향의 전문가평가지수가 소폭이나마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이는 지난 분기에 보수 성향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데 대한 반등과 함께, 8.25 합의에서 북한에게 ‘유감’이란 표현의 최초 합의문을 얻어냄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 원칙론이 유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8.25 합의로 남북간 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간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가 체감의 주관적 지수와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성과 도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정치·군사적 부문과 달리, 경제 및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지수가 하락한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둘째, 8.25 합의 이행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 의제 제안과 이행으로 작은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당국간 회담에서 민감한 정치·군사적 이슈보다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제·사회문화 사업부터 우선 논의하면서 점차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과 마이너스 성장’ 경제가 아니고 남북교역을 포함해 총 100억 달러 규모의 무역국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변화 유도 방식에 있어서도 북한의 시장화 진전과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과 연계한, 보다 전향적인 교류협력 제안과 정책 집행을 유연성이 요구된다.

1. 2015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¹⁾

○ (종합) 2015년 3/4분기 실적지수 및 4/4분기 기대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함

- (평화지수) 2015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9.7p나 상승한 47.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로 진입

- 한반도 평화지수는 교류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의 급반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짐
- 이로써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상태'에서 북한 실세 3인방 방문으로 일시 반등했던 2014년 4/4분기(44.7)의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로 회복

- (기대지수) 2015년 4/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7.8p 상승한 53.1을 기록하여 전문가들의 남북관계 전망은 3분기 만에 긍정적으로 전환

< 2010~2015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기대지수 추이 >



1)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를 위해, 2015년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 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4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08%임.

2. 특징 분석 및 항목별 · 성향별 평가

○ (특징 분석) 주관적 지수와 객관적 지수가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며, 주관적 지수 중에서도 기대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2015년 3/4분기의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는 소폭 하락한 46.8을 기록
 - 정량지수 하락은 남북교역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제 교류 감소에 기인
- 주관적 지표인 3/4분기 전문가평가지수와 4/4분기 기대지수는 모두 큰 폭 상승
 - 전문가평가지수는 22.4p나 대폭 상승한 47.2를 기록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음. 이는 8.25 남북고위급 합의 도출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 4/4분기 기대지수는 17.8p나 대폭 상승한 53.1을 기록해 2013년 4/4분기(61.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 폭도 2010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이는 8.25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 교류 확대, 우려했던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의 도발 자제 등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됨

< 2013~2015 HRI 한반도 평화지수 부문별 추이 >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이벤트지수	교류지수	
'15. 3분기	47.0 (▲9.7)	47.2 (▲22.4)	46.8 (▽3.0)	49.1 (▲0.2)	44.6 (▽6.2)	53.1 (▲17.8)
'15. 2분기	37.3 (▲3.7)	24.8 (▽1.9)	49.8 (▲9.3)	48.9 (▲3.2)	50.8 (▲15.4)	35.3 (▽4.9)
'15. 1분기	33.6 (▽11.1)	26.7 (▽12.3)	40.5 (▽9.9)	45.7 (▽1.2)	35.4 (▽18.5)	40.2 (▽11.6)
'14. 4분기	44.7 (▲7.3)	39.0 (▲7.7)	50.4 (▲6.8)	46.9 (▲0.3)	53.8 (▲13.1)	51.8 (▲11.1)
'14. 3분기	37.4 (▽1.0)	31.3 (▽1.8)	43.5 (▽0.3)	46.3 (▽0.5)	40.8 (0.0)	40.7 (▽4.8)
'14. 2분기	38.4 (▽2.4)	33.1 (▲1.7)	43.8 (▽6.6)	46.8 (▽5.5)	40.8 (▽7.7)	45.5 (▲3.2)
'14. 1분기	40.9 (▽3.3)	31.4 (▽14.2)	50.4 (▲7.6)	52.3 (▲5.2)	48.5 (▲10.0)	42.3 (▽19.3)
'13. 4분기	44.2 (▲9.2)	45.6 (▲8.9)	42.8 (▲9.5)	47.1 (▲0.6)	38.5 (▲18.5)	61.6 (▲17.5)
'13. 3분기	35.0 (▲4.4)	36.7 (▲3.9)	33.3 (▲4.8)	46.5 (▲16.6)	20.0 (▽6.9)	44.1 (▽2.6)
'13. 2분기	30.6 (▽2.6)	32.8 (▲6.7)	28.4 (▽11.8)	29.9 (▽3.6)	26.9 (▽20.0)	46.7 (▲12.6)
'13. 1분기	33.2 (▽9.1)	26.1 (▽7.8)	40.2 (▽10.4)	33.5 (▽14.6)	46.9 (▽6.2)	34.1 (▽21.3)

○ (항목별 평가) 8.25 남북고위급 합의 도출로 전문가평가지수는 큰 폭 상승했으나, 실적치에 기반한 정량분석지수는 하락

① 전문가평가지수 (2015년 2/4분기 : 24.8 → 3/4분기 : 47.2)

- 총 144명의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이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이전 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3/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22.4p나 상승한 47.2를 기록하면서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상태'에서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로 크게 개선
- 이는 6.15 남북 공동행사 무산과 북한의 광주 U-대회 불참, 목함 지뢰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8.25 남북고위급 합의 도출로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 해소된 데 힘입은 것으로 평가

② 정량분석지수 (2015년 2/4분기 : 49.8 → 3/4분기 : 46.8)

- 3/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3.0p 하락한 46.8을 기록
- 이는 이벤트지수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교류지수가 6.2p 하락했기 때문

< 2010~2015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의 추이 >



- 이벤트지수 (2015년 2/4분기 : 48.9 → 3/4분기 : 49.1) : 지난 분기에 비해 0.2p 소폭 상승하여 큰 변화가 없었음
 - 이는 3/4분기 내내 남한의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무응답과 대남 비난, 목함 지뢰 사건 등으로 긴장 조성 국면이 지속되었으나, 남북간 8.25 합의로 위기 국면이 해소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됨
- 교류지수 (2015년 2/4분기 : 50.8 → 3/4분기 : 44.6) : 전기 대비 6.2p 하락²⁾
 - 이는 남북교역과 개성공단 사업(2/4분기 대비 3.8% 감소), 경험 부분의 남북 협력기금 집행 실적(2/4분기 18.1억원 → 3/4분기 8.1억원), 그리고 방북 인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0~2015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2) 지난 10월의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확대 등은 4/4분기 조사 실적에 반영될 예정.

○ (성향별 평가)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전환

- 2015년 3/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모두 대폭 상승으로 급반전되었으며, 보수 성향의 전문가평가지수가 소폭이나마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함 전
 - 이는 지난 분기에 보수 성향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데 대한 반등과 함께,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이 8.25 합의에서 북한으로부터 '유감'이란 표현의 최초 합의문을 얻어냄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 원칙론이 유효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임
- 2015년 4/4분기 기대지수는 17.8p 대폭 상승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이는 8.25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사회문화 부문의 민간 교류 확대, 북한의 당 창건기념일 도발 자제 등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

< 2013~2015년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기대 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5. 3분기	52.1 (▲24.8)	55.5 (▲16.1)	48.4 (▲22.8)	54.6 (▲18.4)	46.1 (▲21.1)	48.7 (▲18.5)	47.2 (▲22.4)	53.1 (▲17.8)
'15. 2분기	27.3 (▽4.5)	39.4 (▽5.6)	25.6 (▽1.7)	36.2 (▽8.9)	25.0 (▲0.4)	30.2 (▽3.1)	24.8 (▽1.9)	35.3 (▽4.9)
'15. 1분기	31.8 (▽7.2)	45.0 (▽8.9)	27.3 (▽12.2)	43.2 (▽4.1)	24.6 (▽14.8)	33.3 (▽22.1)	26.7 (▽12.3)	40.2 (▽11.6)
'14. 4분기	39.0 (▲2.4)	53.9 (▲7.7)	39.5 (▲5.2)	47.3 (▲5.2)	39.4 (▲15.0)	55.4 (▲20.0)	39.0 (▲7.7)	51.8 (▲11.1)
'14. 3분기	36.6 (▲4.0)	46.2 (▲1.1)	34.3 (▽1.4)	42.1 (▽4.3)	24.4 (▽7.1)	33.4 (▽11.0)	31.3 (▽1.8)	40.7 (▽4.8)
'14. 2분기	32.6 (▲1.5)	45.1 (▽0.9)	35.7 (▲4.6)	46.4 (▲3.4)	31.5 (▲5.2)	44.4 (▲3.2)	33.1 (▲1.7)	45.5 (▲3.2)
'14. 1분기	31.1 (▽10.8)	46.0 (▽12.2)	31.1 (▽14.9)	43.0 (▽20.1)	26.3 (▽21.2)	41.2 (▽21.4)	31.4 (▽14.2)	42.3 (▽19.3)
'13. 4분기	41.9 (▲6.9)	58.2 (▲16.7)	46.0 (▲6.5)	63.1 (▲15.9)	47.5 (▲12.4)	62.6 (▲20.1)	45.6 (▲8.9)	61.6 (▲17.5)
'13. 3분기	35.0 (▲3.0)	41.5 (▽8.4)	39.5 (▲2.4)	47.2 (▲1.3)	35.1 (▲7.0)	42.5 (▽1.8)	36.7 (▲3.9)	44.1 (▽2.6)
'13. 2분기	32.0 (▲4.9)	49.9 (▲16.2)	37.1 (▲11.8)	45.9 (▲12.4)	28.1 (▲3.6)	44.3 (▲9.0)	32.8 (▲6.7)	46.7 (▲12.6)
'13. 1분기	27.1 (▽7.2)	33.7 (▽23.9)	25.3 (▽11.8)	33.5 (▽23.6)	24.5 (▽6.1)	35.3 (▽15.7)	26.1 (▽7.8)	34.1 (▽21.3)

3. 시사점

- 첫째, 남북간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가 체감의 주관적 지수와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성과 도출 노력이 요구됨
 -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는 모두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지표인 경제 부문의 교류지수는 오히려 하락함에 따라 양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문의 개선이 필요함
- 둘째, 남북관계를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남북 당국회담에서 보다 현실적 의제 제안과 이행을 통해 상호 신뢰 회복이 필요
 - 8.25 합의와 이후의 이산가족 상봉 및 사회문화 부문의 민간교류 확대 등으로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된 만큼, 이를 계속 살려나가야 함
 -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을 위해선 남북관계를 최소한 경색 국면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여 상호 신뢰 회복이 필요
 -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민감하고 복잡한 정치·군사적 이슈보다는 이미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제·사회문화 부문의 협력부터 우선 추진하여 작은 성과들을 축적해가는 것이 필요
- 셋째,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북한을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함
 - 현재 북한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과 마이너스 성장’ 경제가 아니며 남북교역을 포함해 100억 달러 규모의 무역국임을 인식
 -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시장화 진전과 경제특구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 지정 등을 통한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남한에게도 과거의 단순 지원보다는 경험의 파트너로서 대규모 남북경협을 원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변화 유도의 접근 방식도 ‘지원’에서 ‘협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정책 집행에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중 혹은 남·북·러 다자간 공동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개혁·개방을 확대하도록 유도

통일연구센터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부록 1>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와 경제·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 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³⁾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태	20이하

3)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부록 2> 이벤트지수

- 이벤트 지수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회담과 사건 등을 총 11 단계로 구분하여, 평화 정도에 따라 0~100점의 가중치를 부과하여 계산함
- 총 11 단계는 가장 안전한 제1단계의 '양국 통합'(가중치 100점)에서 제6단계의 일상적인 '중립 상태'(同 50~59점),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제11단계의 '전면 전쟁'(同 0~9점) 등의 단계로 구분

<부록 3>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 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회·문화·인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 주 :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융자액의 합.